기획예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11. 6.(금) 09:00

한-중 실버경제 협력 국장급 회의·기업교류회 개최

- '한-중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' 후속조치 본격 가동
- 양국 13개 기업, 기관 등이 참석한 협력의 장 마련

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11월 5일(목)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(NECC)에서 **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**으로 양국 실버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**'한-중 실버경제 협력 국장급 회의' 및 '기업 비즈니스 교류회'를 개최**하였다.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부가 체결한 **'한-중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'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**로 '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(CIIE)' 기간에 맞춰 전략적으로 연계 개최되었다.

< **한-중 실버경제 분야 국장급 회의 및 기업교류회 개요** >

○ (**일시/장소**) '26.11.5.(목) 16시~18시 30분 / 중국 상하이 NECC 4.2홀

○ (**참석자**) (한국) 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, 주중대사관 재경관, 인구구조혁신과장, 한국보건산업진흥원·KOTRA 관계자, 실버경제 분야 기업 7개사 등
(중국)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사 부사장(국장급), 중국국가개발은행 관계자, 실버경제 분야 기업 6개사 등

먼저 진행된 국장급 회의에서 **양국은 '실버경제 발전 현황 및 주요 정책 과제'를 주제로 양국이 차례대로 발표하고, 의견을 교환**하는 시간을 가졌다. 양국 참석자들은 한중 모두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, **고령화를 단지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전환**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.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해 체결된 '한-중 실버경제 분야 협력

MOU'의 후속 조치로써 **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고, 양국 연구기관 및 기업간 상시 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**하였다.

이어 개최된 **'한-중 기업 비즈니스 교류회'에는 양국 유망 기업 13개사(한국 7개사, 중국 6개사)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**하였으며, 기업마다 각 5분씩 기업 소개, 협력 희망 분야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. 양국 기업들은 **각자의 혁신적 기술력과 고품질 제품, 산업 인프라 등이 서로 결합**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실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행사에 참여한 **KOTRA 상하이 무역관 김준기 관장**은 "이번 행사가 실질적인 수출 및 합작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현지 파트너 발굴 등 한중 기업간 실버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**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"라고 밝혔다.

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"양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**실버경제 분야의 협력 필요성**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, **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**"고 강조하며, "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, 향후에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**양국 정부간 실버경제 분야의 정책교류, 기업·연구기관간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인구구조혁신과	책임자	과 장	신대원 (044-214-1730)
		담당자	사무관	최동호 (kylehat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